

정치소설의 담론적 네트워크와 산책자/스파이의 유라시아 문화지리

하신애*

박태원, 「아세아의 여명」(1941)의
중국·홍콩·인도차이나 표상을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박태원의 「아세아(亞細亞)의 여명(黎明)」(1941)을 정치소설(政治小說)이라는 형식성과 산책자/스파이라는 내부 서사 간의 교차를 통해 독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초기 형성되었던 정치소설의 형식성이 전시체제기와 맞물려 어떠한 시대적 맥락을 선보였는지를 고찰했다. 나아가 이 글은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 및 영국령 홍콩·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문화지리(cultural geography)에 입각하여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던 「아세아의 여명」의 산책자/스파이 서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시체제가 박태원 문학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다채롭게 설정했다. 박태원 문학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 월북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생애사를 참조할 때, 선행 연구들이 “작품 세계의 변화를 문제 삼는 작가론적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을 마련하기 힘들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작가론적 관점은 “모더니즘의 산책자”에서 대일 협력을 거쳐 북한 “리얼리즘의 세계”에 도달하는 박태원의 개인적 변모를 고찰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각 작품들의 텍스트 형성 원리 및 서사 전략을 분석하고 시대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된 바 없었던 「아세아의 여명」의 정치소설이라는 형식성 및 산책자/스파이 서사라는 3가지 열쇠말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 및 유라시아의 경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산책/방첩의 문화적 궤적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는 (1) 전시체제가 박태원 장편소설이

* 본 논문은 2021년 10월 15일 난징대학(南京大學) 한국어문학과·연변대학(延邊大學) 동아시아통문화연구중심이 주최했던 <경계/접촉지대와 장소의 탄생: 중국의 한국문학 연구 30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 및 심사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담지한 문학성의 다양한 층위를 부각시키고, (2) 정치소설의 시대적 의의를 태평양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3) 네이션의 기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소설 형식의 소환을 통해 박태원이 대동아공영권과 관련된 어떠한 ‘가능성’을 모색했는지, 이것을 유라시아의 다원적 공간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현(못)했는지를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전시체제기, 상호텍스트성, 모더니즘, 제국주의, 대동아공영권, 왕징웨이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박태원의 「아세아(亞細亞)의 여명(黎明)」(1941. 2.)을 정치소설(政治小說)이라는 형식성과 산책자/스파이라는 내부 서사 간의 교차를 통해 독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초기 형성되었던 정치소설의 형식성이 전시체제기와 맞물려 어떠한 시대적 맥락을 선보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은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 및 영국령 홍콩·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문화지리(cultural geography)¹에 입각하여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던 「아세아의 여명」의 산책자/스파이 서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시체제기 박태원 문학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다채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이, 전시체제기 박태원 문학에 접근하기 위한 경

1 문화지리학은 “인간의 관념과 상상을 물질세계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며, “사회집단이 경관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인간들이 장소와 공간을 구성하고 인지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문화지리학은 의미와 사회적 이해들이 구성, 경합, 협상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그 의미와 이해들을 문화·장소·공간에 관한 여러 개념들과 교차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말기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공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의미 및 이해들이 구성되고 경합하는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문화지리학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특히 박태원의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화적 상상인 ‘대동아’라는 제국의 정치적 구획과 길항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앳킨슨 외(2011), 이영민 외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pp. 22-23.

로는 대체로 대일 협력이라는 “체제 내화”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의해 단선화되어 있었다.² 이러한 접근법은 당대 문학자들을 “국가주의적 실천을 위한 담론 생산 주체로 호명”했던 천황제 파시즘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것이었으며³, 동화(同化)라는 제국의 정책하에 배치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이념적 관점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어떤 사회 정치적 메커니즘도 그 구성원들을 완전히/지속적으로 체제 내화”할 수는 없으며⁴, 식민지의 문학적 상상/실천들은 제국의 체제와 더불어 “근대성·자본·이데올로기 등 복수의 흐름들”에 입각함으로써 범세계와 연동된 문화지리를 형성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⁵, 낱낱의 작품들이 함의하는 문학적 맥락들과 공간적 배경의 다양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선행 연구는 “박태원 문학의 핵심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 혹은 길항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문제시되어 왔던 “친일이나 반일이나의 이분법”보다는 “작품에 대한 정밀한 독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논의 과정”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⁶ 특히 박태원의 작품들 중에서도 「아세아의 여명」은 근대 초기 정치소설의 형식성을 표방하는 동시에 산책자/스파이 서사의 특성까지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적 맥락들을 중국·영국령 홍콩·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이질적인 공간성에 입각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세계의 공존”을 가시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시체제가 박태원이 소환하

2 방민호(2007), 「일제 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pp. 231-279; 하신애(2011),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 표상 연구: 전시체제가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권, p. 359; 이에란(2020), 『박태원의 중국 고전 번역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pp. 4-5.

3 방민호(2007), p. 234.

4 방민호(2007), p. 234.

5 하신애(2018), 『아시아 트러블: 아시아 지역/정체성 상상과 탈중심의 문화지리학』, 엘피, p. 25.

6 정현숙(2006),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신세계 수용 양상」, 『구보학보』 1권, pp. 173-174.

는 정치소설의 형식성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스파이 서사가 담지하는 제국주의적 맥락이나 산책자 서사의 근대적 특성이라는 “이질적이며 미분적이며 개방적인 힘들”⁷과 길항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떠한 문학적 효과를 산출하는가?

박태원 문학에 관한 최근 논의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 월북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생애사를 참조할 때, 선행 연구들이 “작품 세계의 변화를 문제 삼는 작가론적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을 마련하기 힘들었음”을 지적한다.⁸ 이러한 작가론적 관점은 “모더니즘의 산책자”에서 대일 협력을 거쳐 북한 “리얼리즘의 세계”에 도달하는 박태원의 개인적 변모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각 작품들의 텍스트 형성 원리 및 서사 전략을 분석하고 시대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⁹ 특히 「아세아의 여명」은 아래 원본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목에서부터 “정치소설”(政治小說)을 전격적으로 표방했다. 아울러 「아세아의 여명」은 당대 아시아 담론들의 인용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고, 충칭(重慶)-쿤밍(昆明)-영국령 홍콩(香港)-프랑스령 하노이(河內)로 이어지는 중국 정객(政客) 왕징웨이(汪精衛·汪兆銘)의 망명 루트를 지리적으로 형상화했으나, 작가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의 경우 위와 같은 작품의 형식성 및 서사 전략의 특수성에 주목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할

-
- 7 김미지(2014), 『언어의 놀이, 서사의 실험: 박태원의 문학 세계와 탈경계의 수사학』, 소명출판, p. 28.
- 8 유승환(2013), 「박태원 역사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구보학보』 9호, pp. 84-85; 유승환(2015), 「스펙터클에 맞서는 문학의 언어: 박태원의 『계명 산천은 밝아오느냐』론」, 『구보학보』 12호, p. 56; 유승환(2014), 「수사학으로 살펴본 박태원 소설의 문제성」, 『구보학보』 10호, p. 252.
- 9 정현숙(1995), 「박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상허학보』 2집, p. 30; 유승환(2013), 「박태원 역사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구보학보』 9호, pp. 85-88; 유승환(2015), p. 57; 유승환(2014), p. 256.



[그림 1] 「아세아의 여명」 1회 표지¹⁰

필요가 있다.¹¹

이 글에서는 정치소설의 형식성 및 산책자/스파이 서사라는 3가지 열쇠말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 정치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중국과

-
- 10 박태원(1941.2), 「아세아의 여명」, 『조광』. 「아세아의 여명」은 『조광』 목차 및 표지에 해당 작품이 “400매 전작(全作) 정치소설(政治小說)”임을 명시했으며, 중국 정객인 왕징웨이(汪精衛)를 주인공으로 삼아 표지 일러스트에 등장시켰다.
 - 11 지금까지 박태원의 「아세아의 여명」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소략하다. 그중 3건은 박태원의 “작가적 태도”와 신체제 하 담론들과의 길항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도출한 사례이며, 1건은 작품 속 모빌리티 표상에 주목하여 개별 주제들의 욕망을 규명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한 사례이다. 지금까지 「아세아의 여명」의 형식성 및 서사 전략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아세아의 여명」에 대해 작가론적 연구를 진행한 전자의 사례로는 한수영(2005), 「박태원 소설에서의 근대와 전통 ‘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제론’ 수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9; 김종희(2007), 「일제강점기 박태원 문학의 통속성과 친일성」, 『비교한국학』 15; 서은주(2016), 「신체제가 지상 과제로서의 ‘생활’과 ‘화평론’: 박태원의 「아세아의 여명」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참조. 후자의 사례로는 하신애(2019), 「제국의 범역(法域)으로서의 대동아와 식민지 조선인의 모빌리티(mobility) (2): 박태원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참조.

의 담론적 네트워크¹² 및 유라시아의 경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산책/방책의 문화적 궤적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1) 전시체제기 박태원 장편소설이 담지한 문학성의 다양한 층위를 부각시키고, (2) 정치소설의 시대적 의의를 태평양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3) 네이션의 기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소설 형식의 소환¹³을 통해 박태원이 대동아공영권과 관련된 어떠한 ‘가능성’을 모색했는지, 이것을 유라시아의 다원적 공간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현(못)했는지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정치소설의 상호텍스트성과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

정치소설(political novel)은 근대 초기(1880~1900년대) “정치운동이 문학에 반영된 결과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이 정치조직을 결성하고 정치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¹⁴

12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되어 “다른 텍스트들을 수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승환은 해방기 박태원 역사서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박태원이 “상호텍스트 전략의 모색 속에서 다양한 글쓰기 형식에 대한 실험의 성격”을 드러내었으며, “상이한 계열의 텍스트들 사이의 마주침을 통해 상이한 관점에서의 논평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사료의 한계를 넘어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의 입장을 상상적으로 제시하는 성과”를 도출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박태원 문학의 상호텍스트 전략을 식민지 말기 텍스트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해당 항목; 유승환(2012), 「해방기 박태원 역사서사의 의미」, 『구보학보』 8호, p. 113.

13 윤영실(2011), 「동아시아 정치소설의 한 양상: 『서사건국지』 번역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1집, p. 15.

14 노연숙(2008), 「일본 정치소설의 수용과 한국 신소설의 다층화」, 『인문논총』 59, p. 3.

근대 초기 한중일의 지식인들은 정치소설이 “국민 계몽” 및 “자유와 독립 사상 교육”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설의 힘을 통해 사회변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보였다.¹⁵ 실제로 일본의 정치소설은 “문학과 정치의 결합”을 통해 자유민권운동의 이념을 선보였으며, 중국의 정치소설은 “정치의 전달 매체”로서 문학의 공리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선 정치소설은 일본·중국과 달리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을 형상화하기보다는 “계몽 교과서/문명 안내서”로 기능했으며, “역사전기와 신소설의 층위를 관통하는 정치서사(political narrative)”의 불완전한 형식성을 영위했다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지닌다.¹⁶

상기 언급한 조선 정치소설의 불완전성은 정치적 가능성이 소거된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의 입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와해된 이후, “국가의 존망”을 걸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던 일본·중국의 문인들은 정치소설을 통해 “국회 개설”이나 “의회 설립”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제안했으며, 정치소설의 주인공들은 “이상적 정치론을 발언하는 기관”으로 배치되었다.¹⁷ 이러한 맥락은 조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선행 연구는 1900년대 초반 현공검이나 박은식 등의 문인들이 “혁명적 도구”로서 정치소설에 관심을 가졌으며, “독립사(獨立史)·망국사(亡國史)·자유(自由)·자주(自主)” 등의 주제를 다

15 문대일(2014), 「한중 정치소설의 발전양상에 대한 일고찰」, 『중국학연구』 68, pp. 111-114.

16 윤영실(2011), pp. 13-15; 노연숙(2008), pp. 1-4. 참고로 선행 연구에서 정치소설의 전형으로 제시했던 작품은 자유민권운동가였던 스에히로 뫼초(末広鉄腸)가 자신의 정치사상을 토대로 집필했던 『雪中梅』(せつちゅうばい, 1886)이다. 인민의 참정권 및 “국회의 개설”(国会の開設)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1903년 중국에서 번안되었으며, 조선의 구연학에 의해 『설중매』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1908년 회동서관에서 발간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연숙(2008), pp. 1-3 참조.

17 문대일(2014), p. 115; 柳田泉(1935), 「末広鉄腸研究」, 『政治小説研究(中)』, 春秋社, p. 513.

론 일본·중국의 정치소설을 대대적으로 번역·번안했음을 밝혔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자유민권운동 등 실제 정치 활동을 근간으로 했던 일본·중국과 비교할 때, 조선 정치소설이 담지한 변혁의 에너지는 식민화의 위기에 처한 현실 '너머'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주제적 측면에서, 조선 정치소설은 임화의 지적처럼 실존하는 국가의 “홍융과 고난 극복”을 목표로 삼았던 일본 정치소설과 달리 부재(不在)하는 국가의 독립자주를 목표로 삼는 양상을 보였다.¹⁹ 이처럼 현존하는 실세계의 정치성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조선 정치소설은 이후 “정치조직이나 행위가 결여된” 근대 정치의 “언설”만을 소개하는 면모를 보였다.²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선인들의 불안정한 현실적 입지로 인해 정치소설이 (1) 과거로의 이행 (2) 정치운동의 시공간과 소설 창작의 시공간 분리라는 고유한 형식적 특성을 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연숙은 일본 정치소설의 번안 작품인 『설중매』(1908)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국회 개설의 승리를 경축했던 해당 작품이 번안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십 년 전 과거로 시점을 옮기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때 독립협회를 비롯하여 『설중매』에 나타나는 ‘과거의 정치운동’에 대한 조명은, 정치적 가능성이 차단된 조선의 현실 속에서 번역/재현이 불가능해진 정치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서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동했다.²¹ 실제로 임화는 조선 정치소설이 사실(史實)이나 설화의 형태를 빌려 정론을 표현하는 ‘과거로의 우회’를 특징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운동/소설 창작의 시공간 분리는 정치와 문학의 완전한 결합을 성취하

18 문대일(2014), pp. 115-117.

19 임화(2009), 「개설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임규찬 편), 소명출판, pp. 139-152.

20 노연숙(2008), pp. 10-12.

21 노연숙(2008), pp. 10-12.

지 못하는 “반정론(半政論) 반소설(半小說)”의 형식성을 초래했다.²²

이처럼 과도기적 문예였던 조선 정치소설은 한일합방을 거쳐 제국-식민지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퇴조하기에 이른다. 즉 과거 시점에 고착되었던 정치소설은 “현금(現今)의 있던 사람의 실지 사적(事蹟)”을 근간으로 하는 신소설로 대체되었다.²³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 이러한 변화는 사실성 및 오락성이 강한 문학작품을 선호했던 당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²⁴, 이는 제국(帝國)이라는 근대 네이션의 형태가 갖춰진 이후 (혹은 독립된 네이션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구국(救國)이나 독립자주라는 임무로부터 차단되어 버린 조선인들의 현실적 행보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인들의 정치적 에너지는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다시금 발현되었다. 제국-식민지 체제를 벗어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권역 체제로의 진입을 앞두었던 시기, 공존공영이나 오족협화라는 제국의 기치하에 ‘열린’ 발화의 가능성을 포착한 조선인들은 네이션-지역 공동체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들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오자키 호츠미(尾崎秀実)·쑨원(孫文)·저우포하이(周佛海)·왕징웨이(汪精衛)·장밍(張鳴) 등 일본·중국 정객들의 논의가 매체에서 회자되었고²⁵, 동아협동체론·동아연맹론·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아주국제연맹(亞洲國際聯盟) 등 아시아의 대안적 질서 수립을 위한 지정학적 전망들이 다채롭게 검토되었다.²⁶ 위와 같은 식

22 임화(2009), pp. 139-152.

23 이해조(1911), 『『花의血』 서문』, 『매일신보』(1911.4.6.).

24 문대일(2014), pp. 123-128.

25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東亞協同體와 朝鮮」, 『삼천리』 제11권 제1호; 「新支那의 政治家論客의 日支和平要綱」, 『삼천리』 제12권 제6호(1940.6.1.); 上海興亞院文化局 平田在福(舊名 張在福)(1942), 「아세아주의와 동아신질서 건설, 순문 왕정위외 중국 정객의 아세아론을 기초로 하여」, 『대동아』 3.

26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p. 170, pp. 222-224; 하신애(2018), pp. 36-37.

민지 말기의 담론들은, 제국과 식민화된 민족 사이에서 “편복(編蝠) 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에게 “신동아 및 세계 건설”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서 인식되었다.²⁷

흥미로운 점은, 식민지 말기 정치장에서 조선인들이 여전히 제한적 입지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인정식은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와 조선(朝鮮)」이라는 논설에서 “정권을 「리-드」하려는 혁신세력의 동아협동체 기획”에 대해 적극적인 찬동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신동아 건설” 논의가 향후 조선인들에게 “내지인과 동등한 정치적 자격”을 누리게끔 하는 “조선인 참정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정식은 이에 덧붙여, “동아협동체의 이상은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다할 때에만 조선민중에게 생존과 번영과 행복을 약속하려 한다. 여기에 조선인의 운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했던 것이다.²⁸ 요컨대 “신동아 및 세계 건설”을 둘러싼 조선인들의 정치적 발화는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의 임무를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이는 식민지 말기 조선인들이 근대 초기와 유사하게, 정론(政論)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국/과거로의 우회를 선택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1940년대 매체에 게재된 신동아 논의들은 이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즉 「신지나(新支那)의 정치가논객(政治家論客)의 일지화평요강(日支和平要綱)」, 「아세아주의와 동아신질서 건설, 손문 왕정위 외(外) 중국 정객의 아세아론을 기초로 하여」와 같은 논설들은 “지나측 통신사 기자와 회견 때의 담화록”을 번역·재제하거나, “우리 편에서 듣기가 어려웠던 “중국 측의 주장과 기(其) 이론”을 적극 인용함으로써 “중국 측 아세아관(亞細亞觀)”을 경유한 식민지인의 관점을

27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28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가시화하고 있다. 이때 타국/과거로의 우회를 선택한 기사들의 논조가 제국의 관점과 상이했음은 물론이다.

만일 日本이 성의를 가지고 中國과 친선코저 한다면 즉시 먼저 中國을 도와 불평등한 조약을 폐제하여 주인된 지위를 奮回시키여 中國으로 하여금 자유의 신분을 획득식함에 있어서 비로소 中國은 日本과 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략) 幾千年의 역사와 지위로 말한다면 中國은 兄이요 日本은 弟이다. 此際兄弟互相集合하여 一家 화목하여진다면 즉시 弟된 日本은 其 兄이 임이 십수년간을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其 고통의 원인은 즉 불평등조약이다. 更이 弟가된 諸君은 兄을 대신하여 憂를 분담하여 兄을 조력하여 불평등 조약을 폐제하고 노예의 지위로부터 이탈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後래야 中國과 日本은 비로소 다시금 형제가 되는 것이다. (神戶에서 孫文의 講演 1節-1924).

中國의 현재 구할 바는 국가민족의 독립생존, 자유평등인 것은 小毫도 의 심할 여지가 없다. 中國의 국가민족독립생존 자유평등을 줌에 있어서 비로소 日本과 함께 東亞의 화평과 안정의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汪精衛)²⁹

쑨원·왕징웨이 등 과거 발화되었던 중국 측 아세아관을 검토하는 위 기사에서, “불평등조약 폐제·국가민족의 독립생존·자유평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제국을 유일 절대의 맹주로 하는 동아의 재편성”을 강조했던 “제국 측의 입장”³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새롭게 열린 정치장에서, 조선인들이 타국/과거의 아시아 담론들에 대한 상호텍스트 전략을 통해 제기했던 것은 미달의 가능성으로

29 上海興亞院文化局 平田在福(舊名 張在福)(1942). 볼드체는 필자 강조(이하 동일).

30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남아 있던 독립 자주의 언설이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나 행위가 여전히 결여된 조선의 현실은, 제국과 상이한 관점을 지닌 조선의 문인들이 ‘실행 없는 정치 언설’과 더불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현실 ‘너머’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0년대 초반으로부터 삼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 ‘정치소설’이라는 표제를 단 채 중국 정객 왕징웨이(汪精衛)의 과거 행적을 경유하여 정치운동의 실패 및 권역 너머로의 망명을 서사화했던 『아세아의 여명』은 위와 같은 맥락하에 창작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³¹

상기 언급한 맥락에 따라, 「아세아의 여명」(1941.2)은 상호텍스트 전략에 입각한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아세아의 여명」에 나타난 중국 정객/언설 및 관련 조직/행위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세아의 여명」이 선보이는 상호텍스트 전략은 3가지 시간성과의 연관하에 전개되었다. 즉 (1) 항전과/화평과 간의 정치적 대립 끝에 충칭-쿤밍-하노이로 망명하여 특무공작대원과 대결하는 왕징웨이의 언설 및 행위성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시간성, (2) 동진(東晉)·남송(南宋)·명말(明末)의 역사 및 1920년대 중국의 정치 언설들을 인용·환기함으로써 중국-일본 간 화평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과거의 시간성, (3) 왕징웨이의 신(新)정부 수립이 완료된 1941년 2월의 시점에 과거의 자료들을 취사선택하여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 박태원의 미래의 시간성이다. 이 3가지 시간성은 「아세아의 여명」이 표방하는 정치소설이라는 형식성과 맞물려

31 윤영실은 “내선일체 정책으로 조선민족의 전도가 불투명했던 1930년대 말”, 임화가 『개설신문학사』에서 “고소설-신소설-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문학사의 궤도와 동떨어져 있는 정치소설을 굳이 과도기의 문학 양식으로 끼워 넣은” 이유로 “대한제국기에 아직 가능성으로서 존재했던 조선 민족의 국민국가라는 ‘정치’를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박태원의 정치소설 창작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하에 시도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영실(2020), 「세계문학, 한국문학, ‘정치소설’의 번역(불)가능성: 임화의 『개설신문학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0, p. 269.

[표 1] 「아세아의 여명」에 나타난 중국 정객/인용 언설 및 관련 조직/행위

	중국 정객	인용 언설	관련 조직/행위
1장 화평· 항전	왕징웨이	1938년 12월 9일 충칭 중앙은행 연설	항전파/화평파 정치적 대립 동진(東晉), 남송(南宋), 명말(明末)의 역사 회고
	장제스	1938년 12월 9일 충칭 중앙은행 연설	항전파/화평파 정치적 대립
	쑨원	1924년 11월 일본 고베 연설	1924년 대아세아주의 회고 중국-일본 화평 강조
2장 밀사 3장 탈출	육유 (陸游)	시 (1137~1210)	남송(南宋) 주진파/주화파 정치적 대립 환기 충칭 탈출 쿤밍 도착
4장 동지	임백생(林柏生) 매사평(梅思平)	1938년 12월 21일 로이텔 중경전	하노이 망명
5장 낭패 6장 성명	왕징웨이	1938년 12월 30일 홍콩 남화일보 기사 (전문 인용)	화평통전 발표
7장 제3처장 8장 제2처장	저우포하이	1939년 홍콩 남화일보 기사	1924년 대아세아주의 회고 중국-일본 화평 및 신동아건설 결의
9장 회유 10장 회생	쨥중밍 (曾仲鳴)	1939년 3월 23일 유언	항전파 특무공작대원 피습/사망 5만2천 피아스트르 소절수 전달
	왕징웨이	1939년 3월 23일 우국지정 피력 기사 작성 (미완성/미인용)	항전파 특무공작대원 회피 세계만유 지령
서사 종결			
	왕징웨이	1940년 3월 30일 화평건국 10대 정강 발표(미포함)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 수립 (미포함)

근대 초기 조선 정치소설의 “반정론(半政論) 반소설(半小說)”³²이라는 특징을 반복하고 서사의 파탄을 초래하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화평·항전>에서 장제스의 항전과와 왕징웨이의 화평과 간의 대립을 형상화함으로써 당대 정치운동을 서사화하는 듯했던 「아세아의 여명」은, 육유·쑨원이라는 타국/과거의 정치 언설의 인용에 입각하여 정론(政論)의 차원으로 재정위된다. 이때 ‘실행 없는 정치 언설’로 대체된 정치운동의 공허함을 대신하여, 서사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충칭-쿤밍-홍콩-하노이로 이어지는 왕징웨이의 망명 행위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망명을 통해 중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당대 정치운동의 “홍흥과 고난 극복”이라기보다는, 왕징웨이가 항전과 특무공작대원으로 표상되는 스파이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감지되는 스타일이나 영국령 홍콩·프랑스령 하노이라는 근대화된 시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행 없는 정치 언설’을 산책자/스파이 서사로 대체한 끝에, 「아세아의 여명」은 화평과가 목적으로 삼았던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中華民國南京國民政府)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요 구성원인 쟁중밍의 희생에 입각하여 정치조직의 와해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조선의 작가 박태원은 1941년 2월의 시점에 왕징웨이가 신정부를 수립하고 <화평건국 10대 정강>을 발표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³³ 이러한 소설 창작

32 임화(2009), pp. 139-152.

33 왕징웨이의 화평론, 화평통전 발표, 망명·피습 사건 및 남경정부 수립 소식은 식민지 조선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세히 보도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왕징위 화평해결 언설 민중은 철저 항일을 주장」, 『동아일보』(1937.12.6.); 「왕징위 외유설」, 『동아일보』(1938.12.24.); 「汪의 국외탈출 중앙통신사보도」, 『동아일보』(1938.12.25.); 「왕징위 도피설」, 『동아일보』(1938.12.27.); 「汪의 행방과 좌익기관지보도」, 『동아일보』(1938.12.27.); 「왕징위 항향(香港) 착 확실」, 『동아일보』(1938.12.31.); 「삼십일: 왕징위 중대성명발표」, 『동아일보』(1939.1.1.); 「汪, 신변 위협 급박으로 하내(河內) 은가에 의존피신」, 『동아일보』(1939.1.8.); 「汪의 은거처는 하내(河內) 유일의 피서처」, 『동아일보』(1939.1.12.); 「여권 급여비 지급코 蔣, 汪에 구주 외유 권고」, 『동아일보』(1939.1.15.); 「왕징위 일

의 시공간은 1938년 12월 9일에서 1939년 3월 23일에 이르는 왕징웨이의 화평과 운동의 시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며, 작품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겹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전시체제가 「아세아의 여명」에서 드러나는 3가지 시간성 간의 단층(斷層) 및 ‘정치운동과 소설 창작의 시공간 분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근대 초기 정치소설이 선보였던 타국/과거로의 우회 및 “반정론(半政論) 반소설(半小說)”의 형식이 재현의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행위를 서사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당초 대동아공영권의 형상화라는 실세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획되었던 「아세아의 여명」은 과거 발화되었던 중국 측 아시아 담론에 대한 상호텍스트 전략에 입각함으로써 무엇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어떠한 연유로 기존 정치소설의 형식과 한계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던 식민지 말기 조선의 담론장과 마찬가지로, 작가인 박태원이 타국/과거로의 우회를 선택함으로써 중국 측 아세아관을 경유한 식민지인의 관점을 가시화하고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표지에 게재된 편집자의 소개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세아의 여명」은 당초 제국 일본과의 합작에 의해 탄생한 왕징웨이의 “신정부 수립” 과정을 서사화하고자 기획된 것이다.³⁴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의 전망과도 직결되는 왕징웨이의 중국-일

과 임백생(林伯生) 흥한에게 피습, 『동아일보』(1939.1.19.); 「왕정위 피습, 『동아일보』(1939.3.23.); 「新 중앙정부수성립!」, 『동아일보』(1940.3.31.).

34 「아세아의 여명」의 표지에 게재된 소개글에서, 해당 작품은 왕징웨이를 비롯한 중국 화평과 “열혈지사”들의 “백절불굴 일로매진”하는 정치운동을 조명함으로써 “금일의 신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유혈사! 분전기!”를 서사화하고 “풍운 가득한 아세아 대륙에 새벽이 찾아오는”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표지의 소개글은 작가인 박태원이 아닌 편집자가 담당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로는 1) 작품 전반에 걸쳐 박태원은 왕징웨이(汪精衛)를 왕자오밍(汪兆銘)이라는 본명으로 호칭하는데, 표지의 소개글에서만 유일하게 왕징웨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점, 2) 작품의 결말이 신정부 수립에 도달하지 못하고 세계 만유를 고려하는 왕징웨이의 모습에서 맺어지고 있는데, 소개글에서는 작품이 “마침내 금일의 신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본 간 화평론을 형상화하는 대목에 이르러, 박태원은 2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1924년 11월 쑨원의 일본 고베 연설과 ‘대아세아주의’로 우회한다. 또한 박태원은 동진(東晉)·남송(南宋)·명말(明末)의 역사 및 육유의 시³⁵를 언급함으로써, 1938년 중국의 항전과/화평과 간의 정치적 대립을 국가들의 흥망(興亡) 및 남송 시대 주전과/주화과 간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과거의 사실(史實)과 교차시킨다. 해당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상으로 볼 때 동진(東晉), 남송(南宋)은 불행히도 외족(外族)의 침범을 받았건만 그래도 오히려 百여 년의 편안(偏安)을 얻을 수 있었으나, 명말(明末)의 홍광(弘光), 영력(永曆)에는 그나마 잔喘(殘喘)을 보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략) 지금은 어떠한가? 이를 명조 말년에 비하여 볼 때 오히려 더 두려운 바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무리들이 유구주의(流寇主義)를 제창한 이래 토비(土匪)도 유격대에 편입이 되었고 지방보안대(地方保安隊)도 유격대에 편입이 되었고 정규군(正規軍) 속에서조차 점차로 유격대에 편입되는 자가 있어 우리는 항전의 계속을 이자들에게 맡기고 최후의 승리도 이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멸망에 직면(直面)시키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오히려 항전력(抗戰力)이 부족할까를 두려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³⁶

“무릇 국가의 목적은 생존독립(生存獨立)에 있고 화전(和戰)은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화평의 가부(可否)는 그 조건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 조건으로서 국가의 생존독립을 방해하는 것이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태원(1941), p. 311.

35 육유(陸游, 陸放翁)는 중국 남송(南宋)의 대표적 시인으로, 금나라의 침략으로 인한 주전파(主戰派)와 주화파(主和派)의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해당 항목 참조.

36 박태원(1941), p. 316.

면 화평할 수 없고 조건으로서 마약 국가의 생존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면 마땅히 화평할 것입니다. (중략) 듣기 괴로우실 것을 무릅쓰고 저는 주석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강화(講和)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망국적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라면, 물론 그 강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마는 **목린우호(睦隣友好)**, **공동방공(共同防共)**, **경제합작(經濟合作)**과 같은 것이 과연 망국적 조건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혹은 일본이 공동방공 경제합작의 이름을 빌어 우리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독립자유를 완전히 박탈(剝奪)하려 하는 것인 까닭에 영토(領土)를 빼어 주지 않더라도 빼어 주는 것보다 심하고 배상(賠償)을 물지 않더라도 무는 것보다 심하다 말할지 모르나 이것은 당치 않은 말입니다. 공동방공, 경제합작에는 내용(內容)과 범위(範圍)가 정하여져 있는 것인 까닭에 우리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면 그만인 것입니다.**”(중략)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은 돌아가신 손중산(孫中山)선생의 말씀입니다.”

왕조명은 말을 하다 말고 머리를 들어 저편 벽에 걸리어 있는 손일선(孫逸仙)의 초상을 우러러 보았다. 우러러보매 감개는 은근히 새로운 바가 있어, 눈꺼풀이 제절로 더워짐을 느끼겠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에 관한 선생의 말씀으로 선생의 전 생애에 있어 최후의 연설인 것입니다. 저는 일본 신호(神戶)에서 직접 이 연설을 듣자왔거니와, 그것은 손선생의 생애의 포부(抱負)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산전서’(中山全書)에도 물론 수록(收錄)되어 있으므로 읽지 않으신 분은 없스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강연록(講演錄)을 읽어 보면 우리 아세아의 위기(危機)가 얼마나 중대한가, 아세아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일양국(中日兩國)은 어찌하여 서로 벗이 되어야만 하고 결국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우호관계(友好關係)를 맺어야 비로소 서로 그 중대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중대 위기에 대처(對處)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만약 두 나라가 적이 된다면 서로 저편의 힘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타국에게 기회를 주어 함께 국운(國運)이 피폐(疲弊)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중략)

왕조명은 고개를 번쩍 들어 보았다. 들자 마즌편 서가(書架) 위 벽에 걸리어 있는 사진을 속의 손문(孫文)과 시선이 마주쳤다.

왕조명은 이윽히 이 ‘혁명(革命)의 아버지’를 우러러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증명거렸다.

(선생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부디 제게 힘을 주십시오……)³⁷

왕조명은 서가 앞으로 가서 한 권 서적을 끄내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육방옹(陸放翁)의 시(詩) — 그것은 그의 선친이 그가 아직 열 살이나 그 밖에 안되었을 때, 매일 같이 이삼 수(首)씩 써 보고 외어 보고 하게 하던 그리운 것이었다.

왕조명은 두 시간 지나 팽학패 명의의 비행기 좌석권 여섯 장을 손에 들고 증중명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시름 잊고 방옹의 시를 한 편 두 편 낮은 음성으로 읊고 있었다……³⁸

신문이 오자 그는 안락의자 우에 몸을 비스듬이 눕고 우선 사설(社說)을 읽어 보았다. 손중산 선생의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를 들어 중국은 일본과 손을 맞잡고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에 매진(邁進)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논문은 분명히 주불해의 손으로 써어진 듯 싶었다.

자거나 한가지로 화평구국의 대신념에 불타고 있는 동지의 글은 그의 마음에 조금 전까지 깃들이고 있던 불안을 잊게 하여 주었다.³⁹

37 박태원(1941), pp. 318-324.

38 박태원(1941), p. 326.

39 박태원(1941), p. 391.

위 구절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초반 박태원이 실세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당초 기획에 걸맞게, 왕징웨이의 “신정부 수립” 과정을 서사화함으로써 “중일양국”(中日兩國) 간 우호를 강조하고 이를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담지했음은 자명해 보인다. 이는 당대 신문 기사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왕징웨이가 망명 직전 한커우(漢口)에서 진행했던 연설을 두고, 『동아일보』 등 식민지 매체들은 “화평해결책을 개시”하고자 하는 왕징웨이의 연설에 대해 “청중들은 일제히 철저 항일을 규”하여 “동 연설회는 불유쾌(不愉快)이(而)에 종료(終了)”되었음을 보도하는 한편, “철저적 항전론이 표명에 황하고 항타면에는 저항에 지쳤다고 하는 풍조도 점차 현저”하여 “저항계속이나 화평타협이나 하는 문제로 지나 각 계급이 머리를 앓고 있다”⁴⁰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당대 매체의 보도와 비교할 때, 「아세아의 여명」 초반부는 시종일관 왕징웨이의 화평론이 지닌 합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항전을 주장하는 정부’ 대(對) ‘화평을 바라는 인민’의 구도⁴¹로서 당시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박태원이 왕징웨이의 화평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위와 같은 작품 초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의 여명」에 나타난 화평론에 대한 지지는 타국/과거로의 우회를 통해 각 민족의 “생존독

40 「왕징위 화평해결 연설 민중은 철저항일을 주장」, 『동아일보』(1937.12.6.); 「철저 항전을 蔣에게 요구」, 『동아일보』(1937.12.7.), 「저항? 혹은 타협? 지나 각 계급 두통 중」, 『동아일보』(1937.12.7.).

41 이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어디까지든 항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도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과연 거리에 나가 볼 때, 누구라 한 사람 화평을 입에 올려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투무공작대의 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진심으로 화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박태원(1941), p. 317.

립”(生存獨立)을 강조하는 식민지 특유의 관점을 일관되게 선보인다. 작품 초반 화평파/항전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당대의/특수한 사건을 형상화하는 듯했던 박태원은 동진(東晉)·남송(南宋)·명말(明末)의 정황 및 육유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역사성을 부각시킨다. 이로 인해 화평파/항전파 간의 갈등은 적에 대한 타협/저항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던 중국 역사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며, 실세계의 특정 목표를 향한 정치적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진다. 이를 대신하여, 작품 속에서 선명하게 강조되는 것은 1924년 쑨원의 “대아세아주의”가 담지한 “독립자유”적 측면이다. 쑨원의 대아세아주의는 “‘중국을 평등하게 대하는 민족들의 연합·분투’에 근거하여 아시아 모든 약소민족의 해방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아시아 제패”를 목적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 논의와 변별점을 지니고 있었다.⁴² 실제로 최근의 중국사 연구들은 쑨원의 대아세아주의가 1930년대 중국 문인들로 하여금 “일본에서 발신된 아시아 담론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본위의 아시아주의를 주창”하는 기반이 되었으며⁴³, 왕징웨이나 저우포하이 또한 “쑨원의 대아시아주의에 근거를 둔 중일 친선” 및 “주권독립”을 도모했다는 점을 언급한다.⁴⁴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박태원이 1924년 쑨원의 연설을 인용하며 부각시키는 것 또한 대동아공영권 논의와 차별화되는 ‘식민지 본위’의 아시아 사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아세아주의와 동아신질서

42 김하림(2017), 「1930년대 중국 지식인들의 ‘변강(邊疆)’ 인식과 아시아주의」, 『중국지식 네트워크』 10호, pp. 196-197.

43 김하림(2017), p. 197.

44 배경환(2012), 『현대 중국 민족주의의 굴절: 왕징웨이 연구』, 일조각, pp. 203-204; 김정현(2006), 「중일전쟁기 周佛海를 통해본 친일협력」, 『아시아문화연구』 11, pp. 210-211. 배경환에 따르면 왕징웨이는 실제로 자신이 “쑨원의 후계자”임을 강조했으며, “대일 화평 교섭의 이론적 기반을 쑨원의 유지와 대아시아주의에서 구함”으로써 민족의 독립과 아시아의 화평을 더불어 추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화평파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쑨원의 대아시아주의가 일본의 동아연맹론이나 대동아공영권론으로 대체되어 갔던 시점은 1942년 이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환(2012), pp. 203-211.

건설, 손문 왕정위 외(外) 중국 정객의 아세아론을 기조로 하여」에서 쑨원의 연설을 인용하며 “불평등조약 폐제”에 입각한 중일 양국의 평등한 우호관계 및 “자유”를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태원이 「아세아의 여명」에서 쑨원의 연설에 대한 상호텍스트 전략을 통해 환기하는 것 또한 중일 간 “목린우호(睦隣友好), 공동방공(共同防共), 경제합작(經濟合作)”에 입각한 평등한 우호관계 및 “생존독립”(生存獨立)의 가치라는 점을 위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동아 건설”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제국이 발신하는 대동아공영권론과 변별되는 타국/과거의 아세아론과 연대함으로써 각 민족 간 관점 차이를 부각시키는 상호텍스트 전략은 왕징웨이의 <화평통전>(1938.12.30.)을 통해 보다 두드러진다. 6장에서 전문(全文) 인용되는 <화평통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一九三四年 당고정전협정(塘口停戰協定)을 체결(締結)한 후 우리가 굴욕(屈辱)을 참고 자중(自重)하여 일본과의 교섭에 응하여 왔던 것은, 첫째 군사행동(軍事行動)을 정지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우선 북지제성(北支諸省)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음에 동북사성(東北四省)의 현안(懸案)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여 **정치적으로는 주권(主權)의 보지(保持)와 및 행정(行政)의 완수(完遂)를 최저한도(最低限度)의 요구로 하고, 한편 경제적으로는 호혜(互惠)와 평등(平等)으로서 합작(合作)의 원칙(原則)을 삼으려는 데 있었다.** (중략)

일본 정부가本月二十二일의 성명에 있어서 중일국교(中日國交)의 근본 조정방침(根本調整方針)을 천명(闡明)한 바를 읽어 보건대, **제일점(第一點)은**

45 왕징웨이가 작성한 ‘화평통전’은 「삼십일·왕정위 중대성명발표」(『동아일보』, 1939.1.1.)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전문 소개되었다. 「아세아의 여명」에 인용된 내용은 박태원 자신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며, 원문의 충실한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주의로,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영토(領土)도 군비배상(軍備賠償)도 요구하지 않으며, 일본은 다만 중국의 주권을 존중할 뿐에 그치지 않고 다시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일본인이 중국에 있어 자유로 사업을 경영하는 대상(代償)으로 일본은 중국에 조계(祖系)를 반환(返還)하고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철폐(撤廢)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그 독립(獨立)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 정중(鄭重)하게 성명되어 있다. (중략)

제삼점은 경제제휴(經濟提携)이다. 이 문제도 역시 과거 수년을 두고 일본 정부로부터 누차 제의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분규(紛糾)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상, 경제제휴와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왔다. 이제 일본 정부는 정중히 일본은 중국의 주권과 및 행정의 독립 완정을 존중한다 언명하고, 또 일본은 중국에 있어 경제적 독점(獨占)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다시 중국이 제삼국(第三國)의 권익(權益)을 제한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중일양국은 평등(平等)하다는 원칙에 비취어 경제제휴의 실현을 도모할 것을 성명하고 있다.

금후로 중국은 물론 선린우호로써 교육방침을 삼을 것이나, 일본으로서도 한층 더 그 국민으로 하여금 중국을 침해하고 중국을 모멸하는 전통사상(傳統思想)을 방기(放棄)케 하고 교육상에 있어 친화(親華)의 방침을 확립하여 써, 양국 영원의 평화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⁴⁶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평통전>에 나타난 일본-중국 간의 “선린우호”는 “중국의 주권 및 행정의 독립 완정(獨立完整)”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다. 왕징웨이(王景惠)가 제시했던 “양국 영원의 평화의 기초”는 조계 반환·치외법권 철폐·호혜 평등한 경제제휴를 조건으로 하는 대등한 외교관계의 수립이었다. 이러한 중국 측 아세아관에 대한 수차례의 인용으로

인해, 「아세아의 여명」은 “일본 친화적이긴 하나 대일 협력의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⁴⁷ 이처럼 제국과 상이한 타국/과거의 아세아 관과 연대함으로써 “국가민족의 독립생존”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하는 상호텍스트 전략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담지했던 자주적 욕망을 되짚는 한편, 제국이 발신하는 대동아공영권론의 위상을 동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아세아의 여명」이 선보이는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는 아시아를 사유한다는 공통 목표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 관점 차이가 대동아공영권의 ‘현실적 장벽’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제국 발(發) 대동아공영권을 타국/과거의 정치 담론들과 경합해야 하는 “한 개의 개념”⁴⁸인 것으로 재조정한다. 요컨대 「아세아의 여명」의 형식성은 정치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식민지인이 (“독립자유”로 대표되는) 불가능한 정치적 전망을 형상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치소설의 한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미래의 목표로 기획되었던 대동아공영권의 형상화는 타국/과거로 우회하는 식민지의 욕망과 맞물린 끝에 ‘실행 없는 정치 언설’의 층위에 그쳤으며, 「아세아의 여명」은 1940년 3월 30일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에 이르지 못한 채 미달(未達)의 서사로 남았다.

3. 산책자/스파이 서사와 유라시아의 ‘상호공간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치소설 「아세아의 여명」의 상호텍스트성은 실현 가능한 자국/현재의 정치운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사적 추동력을 얻는 데 실패한다. 『아세아의 여명』은 1924년 쑨원의 대아세아주의나 왕징웨이의 화평구국운동(和平救國運動)이라는 타국/과거의 정

47 이애란(2020), p. 4.

48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치 언설 전달에 주력한 끝에, 현재 시점에서 성취될 수 없는 식민지의 욕망을 되짚을 뿐 제국과 연계된 ‘신동아’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아세아의 여명』의 서사적 공백을 메우는 것은 상기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충칭을 탈출하여 (서구 조차지·식민지의 이력을 지닌) 쿤밍-홍콩-하노이라는 유라시아의 근대적 시공간을 포착하거나, 항전과 특무공작대원과 대결을 펼치는 왕징웨이 및 화평파의 산책자/스파이 서사이다.

선행 연구가 언급했듯이, 산책자(flâneur)란 “중간자(marginal man)의 관점에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근대적 도시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인물”을 가리킨다.⁴⁹ 박태원 문학의 산책자는 “식민지 도시의 삶의 방식”에 휩쓸리기보다는 관찰자적 태도를 견지한 채 “객관화된” 일상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으며, “과노라마적이고 유동적인 응시”를 활용함으로써 식민지적 삶이 지닌 다양한 국면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⁵⁰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산책자의 형상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제국의 시점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원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되며,⁵¹ 이는 「아세아의 여명」 초반 왕징웨이가 “불란서 창(窓)” 앞에서 “시화향 주로(酒壚)에서 들려오는 남국의 음곡(音曲)”을 듣거나, “중경 제일의 훌륭한 차인 미제 크라이슬러”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등 근대 도시의 삶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⁵² 한편 박태원의 산책자 서사는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강화된 동화 정책과 더불어 제국의 시공간 규정력에 속박됨으로써 개체적 관점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

49 장수익(2005),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 지성사, p. 431.

50 최혜실(1995),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 『상허학보』 2집, p. 189; 김복순(2007), 「만보객의 계보와 젠더의 미학적 구축」, 『현대문학의 연구』 제33집, pp. 64-65; 하신애(2011),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 표상 연구: 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pp. 340-341.

51 하신애(2011), p. 341.

52 「아세아의 여명」에 나타난 왕징웨이의 문화 실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하신애(2018), pp. 281-300 참조.

한다.⁵³ 아울러 1940년대 총동원체제의 수립은 당시 유행했던 방첩소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도국방국가와 적성단체로 이분화된 “폐쇄적 서사 구조”를 유포함으로써, 식민지의 중간자들로 하여금 삶의 유동성이나 다원성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적군의 색출 및 제국적 호명에 대한 부응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⁵⁴ 식민지 말기 방첩 서사를 “조선에 잠입한 적성국 스파이단의 첩략 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 탐정” 혹은 제국 “사법 체계”의 활약을 그린 것이라고 규정할 때,⁵⁵ 「아세아의 여명」의 후반부는 화평파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왕징웨이의 은거지인 하노이에 잠입한 특무공작대원의 첩략 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화평파 및 다국적 사법 체계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첩 서사의 면모를 드러낸다.⁵⁶ 그렇다면 박태원은 식민지 경성의 산책이 불가능해진 1941년의 시점에 충칭-쿤밍-홍콩-하노이라는 타국의 시공간으로 우회함으로써, 정치소설의 공백에 산책/방첩을 넘나드는 어떠한 현재의 욕망을 표출하는가?

「아세아의 여명」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이동 경로/공간 및 관련 조직/행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발단 부분에 배치된 충칭이 항진파/화평파 간의 정치적 대립의 주된 배경이자 폐쇄적 구

-
- 53 방민호(2010),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맥, p. 165; 권은(2015), 「대경성의 공간재편과 박태원의 미완의 기획: 박태원의 『애경』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2, p. 402, 406; 하신애(2011), pp. 80-81.
- 54 김성연(2012),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김내성의 『매국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pp. 224-231.
- 55 정혜영(2008),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pp. 282-283, p. 293.
- 56 이와 관련하여, 박태원은 1930년대에 이미 소년탐정소설을 창작하고 『우맹』(1938~1939) 등의 작품에서 범인 추적을 위해 추리 기법을 활용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현숙(2013),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소년탐정소설과 아동문학으로서의 위상:박태원, 김내성, 김영수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김정화(2016), 「박태원 추리소설의 삽화 양상 연구」, 『국제어문』 70, pp. 163-164; 류수연(2006), 「통속성의 확대와 탐정소설과의 역학관계: 박태원의 장편소설 금은탑에 대한 연구」, 『구보학보』 1.

[표 2] 「아세아의 여명」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이동 경로/공간 및 관련 조직/행위

	관련 인물	이동 경로/공간	관련 조직/행위
1장 화평· 항전	왕징웨이 장제스	충칭	항전파/화평파 정치적 대립
2장 밀사	왕징웨이 썩중밍	충칭	화평구국운동 결의 저우포하이 대리인과 접선 남국(南國)의 음곡(音曲) 향유 크라이슬러 드라이브
3장 탈출	왕징웨이	충칭 비행장 쿤밍	카아티쓰 라이트 콘돌형 수송기(輸送機) 탈취 충칭 탈출 배우자(천비켄 陳璧君), 딸과 상봉 저우포하이, 운남성 주석 룽윈((龍雲)과 재회
4장 동지	임백생 매사평	홍콩 빅토리아 스트리트 남화일보사 (영국 식민지)	로이텔 중경전 확인 저우포하이 합류
5장 낭패	장제스	충칭	왕징웨이 탈출 확인
6장 성명	왕징웨이	하노이 (프랑스 식민지)	남화일보 화평통전 발표
7장 제3차장	딩모춘 (丁默邨)	상하이 바(bar)	특무공작대 잠입 위스키 향유 화평통전 지지 장제스와의 관계 청산 결의
8장 제2차장	임백생 매사평 저우포하 이	홍콩 아즈마야 료칸	중산전서(中山畵書) 독서 남화일보 원고 집필 케이블카 탑승/ 빅토리아 피크 산책 계획 특무공작대 피습 홍콩 정청·검찰청 방문 및 권총 요청 논의
	다이리 (戴笠)	홍콩 사호주가 (思豪酒家)	왕징웨이 행적 정탐 오가피 주(酒)·마도로스 파이프·서양미 인 나체화 향유 화평파 암살 예고 및 습격

[표 2] 「아세아의 여명」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이동 경로/공간 및 관련 조직/행위(계속)

	관련 인물	이동 경로/공간	관련 조직/행위
	왕징웨이	탐 다오(Tam Đảo) 호텔 드 라 카스카아드 다르 장(Hôtel de la cascade d'argent) 하노이 코론가 37번지 저택 하노이 교외 태호(太湖) 산보 도로(散步道路)	장제스 사자(使者) 접선 운동 방기· 세계만유 지령 특무공작대원 추적 회피 화평 결의, 우국지정 피력
9장 회유 10장 희생	쥘중밍 천비권	하노이 메트로폴 (métropole) 호텔 탐 다오(Tam Đảo) 호텔 드 라 카스카아드 다르 장(Hôtel de la cascade d'argent) 하노이 코론가 37번지 저택 하노이 교외 태호(太湖) 산보 도로(散步道路) 폴·베엘가 시립대극장 시립병원	홍콩·상하이 동지들과 연락 충칭 정보 수집 화평파 동지 총살 소식 수령 특무공작대 추적 회피 딩모춘 포섭 베트남 현지인 고용 및 경호 강화 일본 총영사관 회담 특무공작대원 피습 현지 경관과 협업 및 특무공작대원 4인 검 거 왕징웨이에게 소절수 전달 사망
서사 종결			
	왕징웨이	1939년 5월 31일 도쿄 방문 1940년 3월 22일 난징 중앙 정치회의 소 집(미포함)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 수립(미포함)

조에 입각한 “공포의 도시”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⁵⁷ 실제로 충칭의 형상화는 국민당 부주석(副主席) 왕징웨이의 화평파와 주석(主席) 장제스의 항진파로 아군/적군이 명확하게 분리된 정치적 풍경으로 시작된다. 왕징위의 화평파가 “중일 양국의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아세아의 위기

에 대한 공동 대응을 표방했다면, 장개석의 항전과는 일본에 대한 “초토항전”(焦土抗戰)을 통해 “전국의 통일을 꾀하고 국가민족을 단결시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를 선포한다. 이때 “초토항전을 부르짖는 부내에서 대립된 주장”을 하는 것은 “신변의 위협”으로 직결되며, “특무공작대(特務工作隊)의 경계”로 인해 “벗어나려면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충칭의 공간성은 “통제 기구”에 입각하여 “거의 완전한” 폐쇄성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전과의 국가 민족주의적 통치 질서에 속박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둘째, 충칭 탈출 이후 왕징웨이(王正廷)가 도착하는 쿤밍-하노이는 방첩 서사의 시작점이자, 특무공작대원으로 명명되는 스파이와의 대결이 벌어지는 주된 배경이다. 쿤밍에 도착한 왕징웨이는 윤남성 주석 룡원 및 화평과 동지인 저우포하이(周福海)와 재회하고,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에는 일본 총영사관과의 회담을 통해 항전과 특무공작대원의 추적을 회피한다. 작품이 발표되는 1941년의 시점에 베트남 북부는 이미 제국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노이가 화평과의 호명을 확인하거나 제국 일본과의 협약을 통해 적성단체를 색출하는 공간으로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하노이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감시 및 암살을 통해 초토항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항전과 특무공작대 제2처장 다이리(戴笠)의 습격과, 이에 맞서 일본 총영사관 및 베트남 현지인/경관과 협력함으로써 스파이 검거에 주력하는 화평과의 방첩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하노이 교외의 태호(太湖)에 위치한 산보 도로(散步道路)에서 전개되는 특무공작대원-왕징웨이 간의 추적 장면은 작품의 클라이맥스이자, 총동원 체제하에서 변화된 식민지적 응시와 산책의 위상을 실감하도록 한다.

그는 갑자기 속으로 생각한 바가 있어 분주히 방으로 뛰어나가 곧 자동차를 몰아 일본총영사관(日本總領事館)으로 갔다. 그곳에서 만나본 사람은 동경 어

58 박태원(1941.2), p. 311, pp. 323-324; 하신애(2019), pp. 89-90. 왕징웨이의 충칭 탈출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모빌리티적 상상력에 대한 분석으로는 하신애(2019), 86-95쪽 참조.

느 신문사의 하노이 특파원(特派員) 두 명과 시내에서 면포상(綿布商)을 경영하며 은근히 왕조명 일파의 화평운동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기시모도(岸本)씨 그리고 또 두 명의 일본인이었다.

회담(會談)은 한 시간 십 분이나 계속되었다. (중략)

여덟시三十分一, 검은 안경을 쓴 왕조명과 증중명은 안남인의 호위(護衛) 두 사람과 함께 자동차로 하노이 교외(郊外), 태호(太湖) 산보도로(散步道路)로 향하였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 잔뜩 찌프린 밤이었다. 증중명은 아무 말도 안한다. 왕조명도 물으려 안한다. 두 명의 호위도 운전수도 말이 있을 턱 없이 완전한 침묵을 그 안에 실고 차차 야자수(椰子樹), 용수(榕樹) 보제수(菩提樹)가 옥어진 길을 어둠을 뚫고 달려갔다.

교외로 나서며 증중명은 고개를 돌려 뒷창으로 어둠 속을 내어다 보았다. 三百미론 가랑 뒤떨어져 한 대의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두 개의 괴물(怪物)의 눈과 같이 번뜩이며 쫓아 오고 있었다.

증중명의 입가에 처창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차가 태호에 이르자 저편으로서 한 대의 자동차가 역시 어둠을 뚫고 나타나며 차 안으로부터 회중전등의 불빛이 세 번 켜지고 세 번 꺼졌다.

증중명이 운전수에게 한마디 하자 차는 서고 이편 차가 서자 마주 바라보며 오던 차도 약 伍十미터들의 간격을 두고 섰다. 그리고 두 자동차에서 탔던 이들이 모두 나리어 서로 접근하여 갔다.

모든 일은 어둠 속에 말없이 거행되었다. 일 분 三十초 뒤에 사람들은 다시 각기 차 우에 오르고 저편에서 오며 회중전등의 신호를 하던 자동차가 먼점 움푹이여 그대로 하노이 시내를 향하여 달려갔다. 왕조명의 차를 추적하여 와서 그곳 길가에 잠시 멈추어 섰던 수상한 자동차 옆을 지날 때 그 차의 끄지 않은 헤드·라이트에 차 안에 앉아 있는 이들의 얼굴이 일순간 화안하게 떠올랐다.

면포상 기시모도씨만 보이지 않고 남겨지는 오늘 저녁때 증중명이 일본총

영사관에서 만난 일본인들이었다.

그러나 수상한 자동차의 수상한 사나이들은 오랜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다음 순간 백伍十미들 앞에서 있던 왕조명의 자동차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들도 곧 다시 추적을 계속하여 갔다.**⁵⁹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이, 총동원 체제하에 “국민오락”의 위상을 지니게 된 방첩 소설은 “관찰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누가 스파이인지 혹은 그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감시하고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방첩 소설은 범인이 밝혀지고 사법 체계가 승리하는 “폐쇄된 구조를 지향”하며, 이는 “대동아 제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데 적합한 양식”이다.⁶⁰ 이에 덧붙여, 방첩 소설의 대두는 그간 객관화된 일상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던 식민지 도시의 응시 및 산책이 “수상한 사나이”를 향한 감시와 색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태호 산보 도로” 위에서 전개되는 것은 “햇드·라이트를 괴물의 눈과 같이 번뜩이며 쫓아 오는” “수상한 자동차”의 정체를 밝히거나 따돌리려는 시도이며,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내어다보는” 인물들의 응시는 적군/아군을 분류하는 제국의 시선에 속박되어 있다. 요컨대 해당 장면에서 중간자적 관찰을 통해 다원적 풍경들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본인-베트남 현지인과의 협업에 입각하여 적군/아군의 얼굴을 가려내고 스파이를 색출하고자 하는 위 구절은, 작품 속에서 ‘일본과의 합작’이 가장 명징하게 형상화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이 작품의 절정에 배치된 방첩 서사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충칭-쿤밍-하노이로 이어지는 정치적 공간들은 상하이·홍콩이라는 동시대 다른 공간들과 교차되며, 이를 통해 ‘상호공간성’⁶¹에 입각한 유라시

59 박태원(1941.2), pp. 386-388.

60 김성연(2012), pp. 227-228.

6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되어 다른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착안하

아의 문화지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작품 속 문화지리는 산책자/스파이 서사와 길항함으로써 1940년대 전후 유라시아의 경관들에 대한 파노라마적 응시를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고, 충칭이나 하노이에서 전개되는 폐쇄적 서사 구조를 상하이·홍콩과의 동시대적 연계하에 동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왕조명의 화평통전이 그의 기관지 향향의 남화일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12월 30일-그로부터 이틀 지난 1월 1일 정오 가까이, **한 사나이가 상해 공관마로의 넓은 길을 황포강 강변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중략) 그는 얼마동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앞만 바라보고 걸었던 것이나, **강변까지 거의 다 나와 불국영사관 앞을 지날 때였다.** (중략) 이 사나이는 장개석의 게·페·우인 특무공작대 제삼처장, 정목촌이다. 그는 대장 진과부의 밀명을 받고 대원을 인솔하고 달포전부터 상해로 잠입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원래가 인테리출신인 그는, 자기가 띠우고 있는 사명에 대하여 늘 회의를 가져 오던 터에, 바로 어제 남화일보에 게재된 왕조명의 화평통전을 읽기에 미쳐, 아무리 싫어도 장개석의 초토항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이제는 장개석과의 일체의 과거 관계를 청산하여 버리리라!)하고 굳게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는 강변에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얼마 동안 강 위로 왕래하는 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으나, 다시 마음에 뜻한 바가 있는 듯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가의 조고만 뺨이를 찾아 들어갔다. (중략) “위스키!” (중략) 위스키가 운반되었다. 정목촌은 진삼이잔에 한잔 따라 주고 자기는 자작으로 석잔이나 꺾어 마시었다.

여, 이 글에서는 상호공간성(Inter-spatiality)을 ‘작품의 주된 배경 안에 다른 공간들이 언급되어 상호 간의 영향하에 각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수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 앞의 글, 해당 항목 참조.

해전에 제이처특무공작대원 몇 명이 향항에 들어와 사호주가(思豪酒家)를 중심으로 암약(暗躍)을 하여 오더니一月四일 밤에는 마침내 제이처장 대립이 그곳에 나타났다. (중략)

“애애—.”

하고 콧을 부른 다음,

“오가피주(五加皮酒) 한 근하고 안주 몇 가지 얼른 날라 오너라.”

그렇게 멍하고 손을 연해 부비며 제자리로 돌아와,

“사관은 어데다 정하셨습니다까?”

하고 물었다.

“아직 안 정했네. 자네만 구찮아 앉는다면, 이 방을 좀 쓰고도 싶으이마는…….”

하고 주머니에서 마도로스·파이푸를 끄내어 든다. (중략)

“그 뒤에 하노이에서는 무슨 적확한 정보가 있었오?”

하고 맞은편 벽에 걸리어 있는 서양미인의 나체화(裸體畵)를 물끄럼이 치어다 보았다.

一月十一일 밤에, 그들은 마침 달도 보름이 가까워 식후의 산책을 겸하여 케이블·카이를 타고 빅토리아 봉(峯)을 올라가기로 말들이 있었다. (중략)

그러나 신문사에 모여 그들이 마약 출발을 하려 할 때, 사동이 한 장의 종이쪽을 들고 들어와 임백생을 주었다.

“대립의 무리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산책은 중지하십시오.”

서두도 서명(署名)도 없는 그 기괴한 형식의 서신에는 이와 같이 써어 있었던 것이다. (중략)

임백생은 잠깐 생각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모자를 집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서들 나십시오.”

도희성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나서다니?”

임백생이 말하였다.

“빅토리아 봉으로 달구경 가잔 말이지.”

(전략) 자정이 넘어 지사관저 들어가는 어두운 옆 골목에서 한 사나이의 피살체가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 (중략) 가치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있던 젊은 탐방기자를 곧 검찰청으로 보내 보았더니 오십분 뒤에 돌아와 하는 말이 시체는 지사관저 근처라기보다는 바로 임백생의 집 옆집 우드 박사의 저택 돌담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몸에 세 방의 탄환을 맞았는데 후두부를 맞힌 것이 치명상이었다 하는데, 이곳에 꼭 생각을 하여 보아야 할 것은 피해자의 연력과 몸체와 그보다도 용모가 바로 임백생과 흡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에는 아무러한 임백생으로도 저 모르게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임백생이 말하였다.

“호신용(護身用)으로 무기(武器)의 필요를 미상볼 느끼게 되는데…”

주불해가 말하였다.

“**밝거든 향행정청(香港政廳)으로 가서 자세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검찰청(檢察廳)에다가 말을 해서 권총을 한 자루씩 얻어 달라고 그러시다.**”⁶²

위 구절에 나타난 상하이·홍콩의 공간성은 상기 언급했던 충칭이나 하노이의 공간성과 대비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가령 하노이 교외에서 수행된 ‘방첩 산보’는 홍콩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달구경을 하려는 화평과의 ‘산책’ 욕망과 나란히 배치된다. 아울러 왕징웨이를 습격하여 “국가민족의 단결”을 달성하려 했던 덩모춘·다이리의 통제적 면모는 이들이 충칭을 떠나 상하이 황포강변을 산책하며 “과거 관계 청산”을 결심하고 “빠아”

에서 “위스키”를 마시거나, 홍콩 사호주가에서 “서양 미인의 나체화”를 감상하는 장면이 이르러 희미해진다. 또한 하노이에서 수행되었던 화평과-일본 총영사관 간의 합작은 화평과 피습 이후 임백생·매사평이 영국령 홍콩 검찰청의 협조하에 사건 설명을 듣거나 보안 강화 및 무기 제공을 요청할 것을 논의하는 장면과 교차됨으로써, 총동원체제기 적군(영미)/아군(일본)의 이분법적 구도 및 대일 협력의 의도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화평과는 “중국의 주권 및 행정의 독립완정”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과 합작을 하지만, 동시에 영국령 홍콩 검찰청과도 합작을 한다. 아울러 화평과가 케이블카 산책 등의 문화 실천을 시도하거나 직접 홍콩 정청·검찰청을 방문하여 보안 요청을 할 것을 논의하는 장면은 동시대 신문 보도와 비교할 때 박태원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이 가장 많이 투영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⁶³, 왕징웨이의 유라시아 망명을 둘러싸고 식민지 조선인들이 어떠한 현재적 욕망을 표출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상하이나 홍콩은 작품이 발표되는 1941년 2월의 시점까지 제국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상태였으며⁶⁴, 이로 인해 제국의 총동원 질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상력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다.⁶⁵ 작품 속에서 빅토리아 피크 산책을 나서고

63 식민지 조선의 매체에서는 화평과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으나, 신문 보도를 통해 각 인물들의 문화적 취향이나 소비 실천 양상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위와 같은 장면은 작가 박태원의 취향 및 상상력이 가미된 대목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백생 피습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건 요약을 통해 보도되었다. “임의 암살계획은 장개석 일파의 왕정위파에 대한 테러 행위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극히 주목되는 바 일방 항항정청당국도 최근 차종 테러사건이 전연 없었더니 만큼 사건을 극히 중시하고 도주한 범인 체포에 상금 백오십불을 걸고 필사의 수사를 하고 있다.” 화평과의 항항정청 방문이나 합작 논의는 박태원 자신의 창작인 것을 알 수 있다. 「왕정위 일파 임백생 흥한에게 피습」, 『동아일보』(1939.1.19.).

64 [아세아의 여명]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상하이의 외국인 조계지는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 시점까지 일본에 함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65 하신애(2018)는 『아세아의 여명』이 발표된 1941년의 시점에 “공명·항항·하노이는 이미 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다”고 기술했으나, 확인 결과 홍콩이 일본에 함락된 시점은 1941년 12월 25일이므로 해당 구절을 수정한다. 참고로 하노이가 일본에 함락된 시점은

자 했던 임백생의 “고집”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결국 좌절되지만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홍콩의 공간 표상은 조선인들이 식민지 도시의 산책이 불가능해진 현실하에서, 산책의 욕망을 가시화하거나 제국의 적군/아군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유라시아의 다원적 시공간을 포착하기 위한 우회 지점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이 이질적 공간들의 교차를 통한 상호공간성 및 이로 인한 「아세아의 여명」의 서사적 동요는 해당 작품이 동시대 다른 방첩 서사와 달리, 폐쇄적이며 완전한 결말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김내성의 「매국노」와 같이 왕징웨이의 망명 사건이 형상화된 타 방첩 서사와 비교할 때, 「아세아의 여명」은 적성단체의 축출이나 아군의 전면적인 승리, 고도국방국가의 방위 성공 등의 목표를 구현하지 못한다. 실제로 사건의 주범인 특무공작대 제2처장 다이리는 검거되지 않은 채 도주했거니와, 왕징웨이는 스파이의 습격으로 인해 주요 구성원을 잃은 채 조직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서사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더불어 화평과를 습격한 스파이의 검거가 홍콩 검찰청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경관”의 주관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⁶⁷, “내부 감시”를 통해 스파이를 색출함으로써 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했던 식민지 말기 방첩 서사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동아 건설을 위해 “화평구국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화평과의 행보는, 결국 제국의 적국인 영국·프랑스 사법 체계의 보호 없이는 안전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김내성의 「매국노」와 비교할 때, 「아세아의 여명」이 선보이는 이러한 불완전한 결말은 방첩 서사의 특징인 적군/아군의 명확한

1940년이며, 곤명은 1942년 3월 일본의 버마 점령을 전후하여 영토의 일부를 점거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덧붙여, 하신애(2019) p. 95의 각주 63번 “1920년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구절은, “1930년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오식(誤植)임을 밝힌다.

66 박태원(1941), p. 371.

67 박태원(1941), p. 394.

이분법적 구도를 상호공간성에 의해 흐트러뜨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매국노」의 일부분을 살펴보자.⁶⁸

영미의 괴뢰정권인 장개석 정권이 어찌 중화민국 전체의 행복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중략) **우리는 왕정위씨와 뜻을 가지하고 속히 일본과의 화평동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참말로 중국과 중국 사역 민중의 행복을 바라고 기원한다면 그들은 결코 장개석으로 하여금 지나사변을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미의 동양침략의 역사를 새삼스러이 이 자리에서 내 입으로 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략) 일본이 겨누고 있는 총뿌리의 방향은 결코 중화민국도 아니고 장개석 정권도 아닙니다. 동방의 성스러운 땅을 침범하고 평화를 교란한 영미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⁶⁹

위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매국노」에서 왕정웨이/장제스의 대립 구도는 영미(서양)/일본(동양)이라는 적군/아군의 이분법적 구도와 전적으로 겹친다. 이러한 허구적 구도는 제국 안팎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법 체계의 내부 감시를 통해 “동방의 성스러운 땅”에 대한 스파이의 침범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⁷⁰ 이와 달리 「아세아의 여명」에서

68 김내성의 「매국노」(1944)는 “제국의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위해 조선에 잠입한 적성국 스파이단의 침략 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 탐정 간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식민지 말기 방첩 서사가 “안과 밖 간의 끊임없는 경계 설정을 통한 내부감시의 기능”을 가동시킴으로써 “우리’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일본정신의 양양”을 의도했던 것이라고 할 때, 「매국노」는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당대 대표적인 “방첩 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국노」에서 김내성 또한 “식민지와 제국 간의 간극에 대한 인지”를 선보였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성연(2012), p. 227; 정혜영(2008), pp. 282-283, 293.

69 김내성(1944), 「매국노」 제10회, 『신시대』, pp. 121-124.

70 「매국노」의 연재는 10회 분량에서 중단되었지만, 제6회에서 범인의 자백·죽음 및 “고도 국방국가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믿음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내성(1943), 「매국노」 제6회, 『신시대』, pp. 135-137.

항전파/화평파가 각자의 운동을 전개하거나 상대방의 습격을 방어하는 곳은 홍콩의 아즈마야 료칸이나 사호주가를 비롯하여, 홍콩 빅토리아 스트리트·하노이 메트로폴(métropole) 호텔·탐 다오(Tam Đảo) 호텔 드 라 카스카아 드 다르장(Hôtel de la cascade d'argent) 등 영국·프랑스 식민지의 역사를 띤 유럽-아시아의 상호침투적 공간인 것으로 제시된다.⁷¹ 이처럼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라시아의 공간들은 항전파/화평파가 각자의 운동을 전개하며 이동을 거듭한 끝에, 단일한 국가 민족주의나 신동아 건설의 목표로부터 멀어져 “위스키”나 항항정청·검찰청과(잘못) 연동됨으로써 특무공작이나 스파이 검거에 실패하고, 제국이 아닌 서양 적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증폭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화평파의 운동은 결국 1939년의 도쿄나 1940년의 난징이라는 “국민정부” 수립의 공간과 연동되지 못한 채, “구라과-세계 만유(漫遊)”의 “최후통첩”을 받은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아세아의 여명』의 상호공간성은 총동원 체제가 유포하는 적군(서양)/아군(동양)의 이항대립적 공간 인식과 경합하는 한편, 유라시아에 내재된 역사적 이력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일한 지역/정체성의 형태로서 분절되지 않는” 공간의 다원성을 상기시키고⁷³ 제국의 정치적 구획과 변별되는 문화지리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71 이처럼 역사적·문화적 상호침투로 인해 생성된 유라시아의 이종혼합적 지형들은 식민지 말기 “대동아라는 분절된 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대 아시아가 “다국적 흐름들의 열린 교차점으로서 요동하고 있었음”을 가시화한다. 아울러 이는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왕정웨이를 하노이 망명을 거쳐 “세계 만유”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초국경적 망명객으로 재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화평파의 운동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전유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독해될 수 있다. 『아세아의 여명』에 나타난 유럽-아시아의 상호침투 및 초국경적 정체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하신애(2018), pp. 281-300 참조.

72 박태원(1941), p. 331-332.

73 하신애(2018), p. 294.

4. 나가며

지금까지 정치소설의 형식성 및 산책자/스파이 서사라는 3가지 열쇠말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중국과의 담론적 네트워크 및 유라시아의 공간을 둘러싼 산책/방첩의 문화적 궤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기 박태원 장편소설이 담지한 문학성의 다양한 층위를 부각시키는 한편, 정치소설 형식의 소환 및 산책자/스파이 서사와의 교차를 통해 박태원이 대동아공영권과 관련된 어떠한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구현(못)했는지를 검토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권역 체제로의 진입을 앞두었던 시기, 타국/과거의 아시아 담론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 자주’의 언설을 환기했던 식민지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박태원은 「아세아의 여명」의 정치소설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중국 측 아세아관(亞細亞觀)”을 경유한 식민지인의 관점을 가시화했다. 특히 박태원은 1924년 쑨원의 언설을 인용하며 ‘식민지 본위’의 아시아 사유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정치소설의 형식성은 제한된 정치적 전망을 형상화하기 위한 식민지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실행 없는 정치 언설’의 층위에 그쳤으며, 「아세아의 여명」은 1940년 3월 30일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을 구현하지 못한 채 미달(未達)의 서사로 남았다. 그럼에도 제국과 상이한 타국/과거의 “아세아관”과 연대하는 식민지 말기 정치소설의 상호텍스트 전략은 조선인들이 담지했던 자주적(自主的) 욕망을 되짚는 한편, 제국이 발신하는 대동아공영권론의 위상을 동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정치소설 「아세아의 여명」의 상호텍스트성은 실현 가능한 자국/현재의 정치운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사적 추동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때 「아세아의 여명」의 서사적 공백을 메우는 것은 충칭-쿤밍-영국령 홍콩-프랑스령 하노이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의 시공간을 포착하거나, 항전과 특무공작대원과 대결을 펼치는 왕정웨이 및 화평파의 산책

자/스파이 서사이다. 식민지 말기 스파이 서사의 대두는 객관화된 일상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던 식민지 도시의 산책이 제국이 규정하는 적성단체에 대한 감시와 색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아세아의 여명」은 유라시아의 ‘상호공간성’에 입각함으로써, 적군/아군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산책의 욕망을 가시화하고 제국의 정치적 구획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원적 시공간을 포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아의 여명」이 발표되었던 1941년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의 장벽 ‘너머’의 세계에 대한 탐색이 차단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처럼 정치소설의 형식성과 접합된 산책자/스파이 서사는 장벽 ‘너머’ 세계의 재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우회 지점들을 형성하고 이질적 공간들의 상호침투를 통해 ‘신동아’라는 “분절된 권역”⁷⁴의 기획과 변별되는 유라시아의 상상을 가시화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참고자료

기본 자료

- 김내성(1944), 「매국노」 제10회, 『신시대』 4.
 김내성(1943), 「매국노」 제6회, 『신시대』 12.
 金明植·印貞植·車載貞(1939-), 「東亞協同體와 朝鮮」, 『삼천리』 제11권 제1호.
 박태원(1941), 「아세아(亞細亞)의 여명(黎明)」, 『조광』 2.
 柳田泉(1935), 「末広鉄場研究」, 『政治小説研究(中)』, 春秋社.
 이해조(1911), 「『花의 血』 서문」, 『매일신보』 1911.4.6.
 임화(2009), 「개설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임규찬 편, 소명출판.
 「新支那의 政治家論客의 日支和平要綱」, 『삼천리』 제12권 제6호(1940.6.1.).
 上海興亞院文化局 平田在福(舊名 張在福)(1942), 「아세아주의와 동아신질서 건설」, 손문 왕정위외 중국 정객의 아세아론을 기조로 하여, 『대동아』 2.
 「왕정위 화평해결 연설 민중은 철저히 항일을 주장」, 『동아일보』(1937.12.6.).

- 「왕정위 외유설」, 『동아일보』(1938.12.24.).
- 「汪의 국의탈출 중앙통신사보도」, 『동아일보』(1938.12.25.).
- 「왕정위 도피설」, 『동아일보』(1938.12.27.).
- 「汪의 행방과 좌익기관지보도」, 『동아일보』(1938.12.27.).
- 「왕정위 항항(香港) 착 확실」, 『동아일보』(1938.12.31.).
- 「삼십일·왕정위 중대성명발표」, 『동아일보』(1939.1.1.).
- 「汪, 신변 위험 급박으로 하내(河內) 은가에 의연피신」, 『동아일보』(1939.1.8.).
- 「汪의 은거처는 하내(河內) 유일의 피서처」, 『동아일보』(1939.1.12.).
- 「여권 급여비 지급교 蔣, 汪에 구주 외유 권고」, 『동아일보』(1939.1.15.).
- 「왕정위 일과 임백생(林伯生) 흥한에게 피습」, 『동아일보』(1939.1.19.).
- 「왕정위 피습」, 『동아일보』(1939.3.23.).
- 「新 중앙정부수성립!」, 『동아일보』(1940.3.31.).

논문 및 단행본

- 권은(2015), 「대경성의 공간재편과 박태원의 미완의 기획: 박태원의 『애경』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2.
- 김미지(2014), 『언어의 놀이, 서사의 실험: 박태원의 문학 세계와 탈경계의 수사학』, 소명출판.
- 김복순(2007), 「만보객의 계보와 젠더의 미학적 구축」, 『현대문학의 연구』 제33집.
- 김성연(2012),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김내성의 『매국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 김중희(2007), 「일제강점기 박태원 문학의 통속성과 친일성」, 『비교한국학』 15.
- 김정화(2016), 「박태원 추리소설의 삽화 양상 연구」, 『국제어문』 70.
- 김정현(2006), 「중일전쟁기 周佛海를 통해본 친일협력」, 『아시아문화연구』 11, pp. 210-211.
- 김하림(2017), 「1930년대 중국 지식인들의 ‘변강(邊疆)’ 인식과 아시아주의」, 『중국지식네트워크』 10호.
- 노연숙(2008), 「일본 정치소설의 수용과 한국 신소설의 다층화」, 『인문논총』 59.
- 류수연(2006), 「통속성의 확대와 탐정소설과의 역학관계: 박태원의 장편소설 금은탑에 대한 연구」, 『구보학보』 1.
- 문대일(2014), 「한중 정치소설의 발전양상에 대한 일고찰」, 『중국학연구』 68.
- 방민호(2007), 「일제 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 방민호 편(2010),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우.
- 배경한(2012), 『현대 중국 민족주의의 굴절: 왕징웨이 연구』, 일조각.
-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 서은주(2016), 「신체제기 지상 과제로서의 ‘생활’과 ‘화평론’: 박태원의 『아세아의 여명』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 오현숙(2013),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소년탐정소설과 아동문학으로서의 위상:박태원, 김내성, 김영수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 엣킨슨, 데이비드 외(2011), 이영민 외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 유승환(2015), 「스펙터클에 맞서는 문학의 언어: 박태원의 『계명 산천은 밝아오느냐』론」, 『구보학보』 12호.
- 유승환(2014), 「수사학으로 살펴본 박태원 소설의 문제성」, 『구보학보』 10호.
- 유승환(2013), 「박태원 역사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 『구보학보』 9호.
- 유승환(2012), 「해방기 박태원 역사서사의 의미」, 『구보학보』 8호.
- 윤영실(2020), 「세계문학, 한국문학, ‘정치소설’의 번역(불)가능성: 임화의 『개설신문학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0.
- 윤영실(2011), 「동아시아 정치소설의 한 양상: 『서사건국지』 번역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1집.
- 이에란(2020), 『박태원의 중국 고전 번역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수익(2005),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 지성사.
- 정혜영(2008),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 정현숙(2006),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신체제 수용 양상」, 『구보학보』 1권.
- 정현숙(1995), 「박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상허학보』 2집.
- 최혜실(1995),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 『상허학보』 2집.
- 하신애(2019), 「제국의 법역(法域)으로서의 대동아와 식민지 조선인의 모빌리티(mobility) (2): 박태원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 하신애(2018), 『아시아 트러블: 아시아 지역/정체성 상상과 탈중심의 문화지리학』, 앨피.
- 하신애(2011), 「박태원 방송소설의 이동 표상 연구: 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한수영(2005), 「박태원 소설에서의 근대와 전통 ‘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제론’ 수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9.

원고 접수일: 2023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5월 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5월 10일

ABSTRACT

The Network of Political Fiction and Eurasian Cultural Geography of the Stroller/Spy

Ha, Shin-ae*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s of
China, Hong Kong, and Indochina
in Park, Tae-won's *The Dawn of Asia* (1941)

This article aims to read Park Tae-won's *The Dawn of Asia* (Feb 1941) through the intersection of a formality of political fiction and the internal narrative of a stroller/spy. Through this, the way in which the formality of political fiction formed in the early modern era inter-winded with the wartime atmosphere to show the specific context of that time was examined.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stroller/spy narrative of *The Dawn of Asia*, which was dynamically panned out based on the discursive network with China and the cultural geography of British Hong Kong and French Indochina, this research adopt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to approach literature. Recent discussion on Park Tae-won's literature points out that previous researches "rarely came up with a perspective other than the author's point of view that took issue with changes in the literary world" whe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creative environment" caused by the

Pacific War and defect to North Korea. This author-centered view had a considerable achievement in examining the personal transformation of Park Tae-won, from a "modernism stroller" to a Pro-Japanese collaborator and then reaching North Korea's "realism world". However, more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are required to trace the interaction with the context of the times.

This paper focused on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formality of *The Dawn of Asia* as political fiction, which has not been a major theme in previous research, as well as the the stroller/spy narrative to explore the discursive network with China based on intertextuality and to analyze the cultural path of strolling/counterespionage which unfolded within the landscape of Eurasia. These attemp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1) highlight the various layers of literary value contained in Park Tae-won's novel during the wartime period, (2)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political fiction diachronically through the period of the Pacific War, and (3) reviewed how Park Tae-won sought the "possibility" related t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by summoning the formality of political fiction,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describing the origin of a nation, and how he could (or could not) realize it through the multi-layered spaces of Eurasia.

Keywords War Regime, Intertextuality, Modernism, Imperialism,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ang Jingwei

